

창조사업 선정 진도·곡성·영암군 특화사업 어떻게...

진도 '상장례 신커뮤니티 만들기'

씻김굿·다시래기 생활문화 정착

곡성 '심청스토리 공감'

주민 누구나 심청가 부를수 있게

영암 '체협학교 선애마을'

완벽한 생태마을 '퍼머컬처' 구현

진도와 곡성, 영암군이 '진도 씻김굿'과 '심청', '생태마을' 등 지역고유의 비교우위 문화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화에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2015년 창조지역사업 공모에서 ▲진도군 '전통 민속 상·장례문화 신 커뮤니티 만들기 사업' ▲곡성군 '곡성&심청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 ▲영암군 '자연을 살리는 체협학교 선애마을'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광주일보 10월 13일 12면>

국비 수억원씩 지원 받아

지역민 일자리·소득 창출

◇진도 '전통민속 상·장례문화'=진도군은 오는 2016년까지 3억60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진도 씻김굿'과 '다시래기' 등 진도 전통의 상·장례문화를 복원하고, 주민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훼손된 지역사회문화를 되살릴 계획이다. 상·장례문화를 복원하고 상여 매기 등을 체험해보는 '주말 문화학교'도 운영한다.

군은 242개 마을 상두계를 정비해 상·장례 기반을 마련하고, 지산면 등 7개 읍·면에서 연 12회에 걸쳐 씻김굿, 다시래기, 만가(輓歌) 등의 진도 상·장례를 연행할 예정이다. 특히 씻김굿 무구 만들기, 상여 매기, 유서 쓰기, 입관 체험 등 진도 상·장례 주말 문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 '심청 스토리 공감'=고전소설 '심청전' 탄생 모티브인 '관음사 연기실화'(효녀 흥장이야기)의 고장인 곡성군은 국비 6억6000여만원 등 총사업비 9억3000만 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사업 ▲주민극단 '마당극 심청전' 창작 및 상설 공연사업 ▲할머니 심청극단 인형극 개발 및 공연 ▲판소리 명가1호 쉼터 조성사업 ▲심청문화유형 찾길 등 심청 콘텐츠 추가 발굴사업 등이 진행된다.

곡성군민이면 누구나 판소리 '심청가' 한 대목을 부를 수 있도록 심청가 부르기 경연대회와 심청가 배우기 강사 파견사업 등 우리가라 심청가 판소리 배우기 사업을 벌인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주민극단'과 '할머니 인형극단' 구성이 눈길을 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거쳐 단원들을 모집해 주민극단을 결성, 지역특색을 반영한 '마당극 심청전'을 창작하고 기차마을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또 지역 할머니 위주로 인형극단을 만들어 곡성특색을 반영한 심청 인형극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암, '체협학교 선애마을'=영암군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총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의 국비를 2017년까지 지원받는다.

'자연을 살리는 체협학교, 선애마을'은 지난 2010년 생태적인 삶에 뜻이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 귀농마을을 조성한 곳이다. 현재 16가구 30여명이 자연농법과 생태화장실, 빗물활용, 선(先)순환 퇴비장 등 친환경 공동체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선애마을은 ▲'에코(Eco) 스테이'와 자연나눔놀이, 교감농부 등 마을사업 ▲청소년 강의 및 지역사회 참여, 그린힐링 콘서트 개최, 효힐링 콘서트 등 문화활동 ▲삼포천 청수 등 봉사활동 ▲대안학교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태마을과 마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생산 및 생활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생태마을의 최고 단계로 꼽히는 '퍼머컬처'(Permaculture=영속적인 농업)를 완전하게 구현하는 마을로 조성, 지역 특화자원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진도=박현영기자 hypark@/영암=대성수기자 dss@

지리산~해남 338km 숲길 만든다

남도 오백리 역사길...2017년까지 84억원 들여 조성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종점인 지리산 자락에서 국토 최남단 해남 땅끝까지 연결하는 '남도 오백리 역사길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7일 전남도와 해남군에 따르면 숲길 조성사업은 백두대간의 지맥을 잇는 상징성 부여와 함께 남도의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 농·어촌을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84억 원을 투입, 총 338.8km의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노선은 구례~곡성~화순~영암~강진~해남으로 6개 군을 통과한다.

시·군별로 ▲'백두대간에서 땅끝으로

지맥 잇길'의 구례 구간(52.1km) ▲'산자락을 적시는 강기슭 길'의 곡성 구간(44.6km) ▲'숲과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숲속길'의 화순 구간(96.4km) ▲'활성산목초지를 지나는 바람길'의 영암 구간(27.2km) ▲'덕룡산과 월출산으로 이어지는 기암괴석의 바위길'의 강진 구간(58.7km)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자락길'의 해남 구간(59.8km) 등 총연장 338.8km다.

전체 구간 중 본선은 271.6km이다. 농·어촌을 체험하고 다양한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지선 67.2km를 연결하며, 기존의 옛길과 임도를 최대한 이용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북평면 주민들이 500년째 '용출다리기' 풍습을 이어오고 있다. 주민들은 '아드림'과 '우드림' 두 패로 나누어 길이 25m·굵기 50cm의 용출을 잡고 힘을 겨루며 풍년과 풍어를 기원한다. 지난해 용출다리기 행사 모습.

해남 북평면 500년 전통 용출다리기 재연

오늘 면사무소 광장서

500년 전통의 용출다리기가 해남군 북평면에서 재연된다.

해남군 북평면용출다리기보존회(회장 김지성 북평면장)는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북평면사무소 잔디광장에서 '제6회 북평용출다리기' 행사를 갖는다.

북평 용출다리기의 역사는 500여년에 달한다.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해안가의

특정장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해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행해졌다. 한국전쟁 이후 40년간 중단돼 오다 지난 2009년 남창 용출다리기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남창마을 당지에서 저녁 8시를 시작으로 북평초등학교와 남창 오일시장에서 시작되는 용출 시가지 행진과 용출 이싸움, 판쌈, 용출다리기, 행사 참가자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동

신설 구간인 72.3km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수평적 경기를 선호하는 여성층,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탄한 숲길로 조성한다.

해남군은 강진과의 경계지점인 옥천도림마을 뒷산 침봉에서 땅끝 주자장까지 연결하는 숲길을 만든다.

군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산자락 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옛길과 임도를 최대한 이용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설구간은 노인인과 여성층, 장애인 등을 배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군은 올해 1억5000만 원을 들여 등산로를 개설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진도 군민의 상 수상자
육산 김옥진 화백 선정



진도군은 최근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육산 김옥진(86) 화백을 '진도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화백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사사를 받은 후 동양화가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발전과 진도군 명예선양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화백은 제19회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제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현대한국회회회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김 화백은 '하산욕우'(夏山浴雨), '강산무진'(江山無盡) 등의 작품 140점과 제자들의 작품 163점을 진도군에 기증해 지난해 11월 진도 향토문화회관 1층에 육산 미술관을 개관했다.

시상식은 11월 1일 '진도 아리랑 축제' 기념식 행사장에서 열린다. 한편 진도군은 매년 지역민의 표상이 될 개인이나 단체를 '진도 군민의 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지금까지 22명이 수상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씻김굿 공개 발표회

내달 2일 진도읍 철마광장

중요무형문화재(제72호인) '진도 씻김굿' 공개 발표회가 11월 2일 오후 7시 진도군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열린다.

진도 씻김굿은 망자의 님을 씻겨 그 님이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천도(遷度)의례다. 죽음을 문화적으로 극복하고 해석하는 호남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큰 굿으로 지난 1980년 11월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개행사는 안당(집안에서 굿을 하게 됐음을 조상님과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님께 고하는 굿거리)→초가망서(조상의 님을 청하는 굿)→제석굿(제석신을 모시는 굿거리)→뉘뉘(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굿)→귀뉘(깨끗이 씻김 영혼을 저승길을 상징하는 긴 무명필 위에 올려놓고 밀어 가는 의식) 등의 순서로 시연된다. 중간마다 관람객과 함께 어울마당도 펼쳐진다.

이번 공개행사는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도군에서만 보존되고 있는 장례문화의 일부를 원형 그대로 선보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예향 진도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SD메디컬 빌딩임대
양산사거리 최고상권!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엘리베이터 2기 운용(대형, 중형)

6층 98평 병원 및 사무실
3층~5층 각층 124평 병원 및 사무실
1~2층 임대완료 레스토랑, 약국 다이소
지하1층 주차장

SD메디컬 빌딩
용두주공 양산타운 APT APT
첨단대로 롯데리아 • 국민은행

문의 : 010-8625-1131(분양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할 지도면 적합 1억6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면 대지 317㎡(97)권령 1235㎡(363) 공시지가 14억 5천 투자까지 좋을 14억
- 전원주택 개발 적합 화순군 동면 임야 126908㎡(38390) 공시가 6억6천 매도 10억
- 광천동 터미널 인근 7층 건물 대지 661㎡(200)건물 741평 대출 15억 전세 4억선 월 1600천 수익 교환도 가능 매도 23억

투자 매도 교환

- 전원생활 적합 장성 삼계면 판백 나무산 36099㎡(10900)9천만원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물 418㎡(126) 안질과 원목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쌍촌역 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선 수익 노후 안정적인 생활에 적합 5억2천
- 진원동 호반 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 영산포와 영암간 도로점 대지 1053㎡(318) 건물 266㎡(80) 쌍촌동 화장실 상가주택과 교환원할 4억5천
- 운천역에서 2분거리 주택 대지 170㎡(52) 건물 97㎡(29)1억3천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 좋은 모델 대지 390㎡(118) 건물 1375㎡(416) 객실33 은행 10억 8200 교환도 가능함 18억
- 합평군 해보면 문정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임대

- 쌍촌동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자리 234㎡(71) PC방, 오락실, 생맥주 타운 등 다용도 보증금 5천에 월 220이나 타협해서 조정함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토지 임대
화정동 대로변에 접한 토지.
모델하우스 및 대형 전사관 최적.

- 지역 : 준주거지역
- 지목 : 대
- 면적 : 3,215㎡
- 임대가 : 협의(매매도 가능)

투자 만 점(지산동)
전원주택, 사찰부지 등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이상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주거 및 보전복지지역 (도로 접)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소액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간 국도 주변 도로 접, 바닷가, 경사완만, 전망최고

- 지역 : 관리, 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 당 3만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특별
빌라분양 6세대

총분양가
530,000,000원

1세대 월세 보 2천만원, 월50만원
1세대 전세 보 7천만원
1세대 분양 1억1천만원 가능
1세대 용자 6천만원

1세대 | 전용 59.4㎡
| 분양 72.6㎡

◎ 위치 ◎
광주 북구 운암동 140-22

투자까지 100%
"강력추천"

다와옥션
☎062)232-999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